

광주일보, 양성평등 위한 '성 인지' 교육 진행



광주일보는 23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성(性) 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강의는 원윤형 (주)블루스톤씨엔티 대표이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광주일보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을 구분해 알아보고 성 차

이와 성 차별을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윤 대표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야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신이 모르고 한 말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다면, 즉시 사과하고 자신의 감수성 부족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관광재단, 베트남 다낭시와 관광 교류 협약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24 다낭 국제 관광 페스티벌에 참여, 전남-다낭 양 지역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MICE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페스티벌은 베트남 다낭시 관광청과 다

낭관광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총 15개국 300여명이 참여하여 각국의 관광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지역 관광객 대상 양질의 관광 기반 시설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상득 전 국회의장 별세



이상득(사진) 전 국회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임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은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 준비 때부터 동생을 도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캠퍼스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요롱 1기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요롱과 코요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산업화 초기 전문경영인으로서 섬유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총선(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한 뒤 내리 6선을 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재정경제위원회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여권의 원로다. /연합뉴스

동신대,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동신대 사회문화대학 재학생 21명은 농협광주본부와 함께 광주시 광산구 소재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수확, 딸기하우스 환경 정리 등을

거들어 호응을 얻었다. 군사학과 4학년 장준영씨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학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겨울나기 물품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대훈)는 23일 '외국인근로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행사는 완도군 일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침구류와 소화기,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등 200여점을 사업장에 배포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정광열 제네시스 부회장

조선대, 대외협력 외래교수 임명



조선대학교(총장 김준성)는 23일 대외협력 외래교수 임명식을 열고 정광열(사진) 제네시스 부회장을 대외협력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정광열 부회장은 앞으로 RISE사업 발굴 및 협력사업을 비롯해 조선대학교의 대외재정사업 유치와 각종 국제·국내적 교류 협력을 통한 대학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정광열 부회장은 제33회 파리에올림픽 부회장,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마케팅 위원장, 경기테크노파크 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 및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기업과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선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공아(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인블랙박스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10 수목드라마 개소리(재)	15 건강의 재구성 섯골(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20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캐리와 친구들
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우리 집 금융아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혹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위시켓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15 시장의 폭력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공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개소리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5 아이 러브 스포츠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20 서울대 야구부 -우리 한 번만 이겨보자(재)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테마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3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2024 목포항구축제기념 KBC축하쇼(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PD로그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볼리비아? 볼리비아 -포토시와 산타크루스>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1:35 한국기행 <추천지역 4부 꽃게 '맛'나니 가을>
0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안녕! 4남매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2:45 다큐멘터리K
08:00 당동명 유치원	15:55 블럭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명 유치원(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4:55 지식채널e
09:20 탐골스타 개칭(재)	16:55 하프와 친구들(재)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22일 辛酉)

<p>36년생 해묵은 일이 처리되는 명쾌함이 있다. 48년생 단 순화 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60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72년생 혼란 일은 아닌 터이니 잘 살펴보자. 84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이니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도록 하라. 96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 버리게 생겼다. 행운의 숫자 : 36, 63</p>	<p>42년생 손꼽아 뜻을 다니 손조름기 그지 없다. 54년생 남을 시켜서는 답답할 것이니 직접 실행하는 것이 낫다. 66년생 인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원을 뛰어 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78년생 남의 뜻으로 돌리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90년생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02년생 막힘이 많다. 행운의 숫자 : 42, 86</p>
<p>37년생 땀 흘려야만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49년생 생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61년생 중박될 수도 있으니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73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으니 속히 조치하여야만 한다. 85년생 일단, 최선을 다한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97년생 복록이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하라. 행운의 숫자 : 13, 83</p>	<p>43년생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55년생 참으로 절기 면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하라. 67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면이니 변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79년생 기틀이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가 처리되는 형국이다. 91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03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8, 71</p>
<p>38년생 시로움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50년생 우열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62년생 중요한 일 이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74년생 마음먹은 바 임의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86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할 일임을 분명히 알라. 98년생 휴식에 문헌 육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9, 61</p>	<p>44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56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능성을 높인다. 68년생 당해 문제가 원할지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80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92년생 국면이 잠시 중단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04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02, 51</p>
<p>39년생 협력하여 조처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51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63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75년생 취약한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87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99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88</p>	<p>45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라. 57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69년생 뻔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게 되는 우를 반복하지 말라. 81년생 고비가 찾아 오더라도 불굴의 끈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93년생 전혀 판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05년생 무리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0, 70</p>
<p>40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52년생 특히 되돌아가는 마당으로 향할 때 조심하라. 64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느니라. 76년생 다각도로 여러 번 검토해 보지 않으면 허점이 생긴다. 88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00년생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자. 행운의 숫자 : 00, 79</p>	<p>46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되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70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82년생 윤색된 이면에는 검은 부분이 숨겨져 있느니라. 94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06년생 의도적이라든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1, 72</p>
<p>41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65년생 끈질긴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77년생 지금의 추세라면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 89년생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한다. 01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행운의 숫자 : 18, 62</p>	<p>35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47년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59년생 기본적인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하리라. 71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83년생 긴박한 상황에서 천군만마처럼 나타나는 은인이 있다. 95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9, 80</p>